

북한의 지리적 표시제 인식 및 현황 연구*

김현정 동아대학교

논문 요약

본 연구에서는 북한의 지리적 표시제 인식과 관련법 및 현황을 분석하였다. 북한은 이미 세계지적재산권기구(WIPO)에 개성고려인삼, 백두산가시오갈피, 고려신덕산삼물, 강서약수, 백두산들쭉술 그리고 평양랭면 이상의 6개 GI 상품을 등록하였다. 향후 북한의 시장 개방 시, 전통상품 및 농업의 보호를 위해 GI의 제도 정비와 관련 상품의 등록 확대가 필요하다. 개혁·개방 초기 북한의 1차 산업 중 농업분야에 대한 지원이 집중될 시기 생산성과 효율성, 농업경쟁력을 제고할 수 있는 중요한 제도가 GI라 할 수 있으며, 동 제도의 활성화를 통해 전통적 노하우와 농업생산품 생산과정의 질적 보호가 유지될 수 있다.

주제어 : 지리적표시제, 북한, 세계지적재산권기구, 리스본협약, 고려인삼

* 이 논문은 동아대학교 교내연구비 지원에 의하여 연구되었음.

이 논문은 [2019 남북법제 연구보고서]의 연구내용 일부를 발췌하여 수정·보완하여 작성되었음을 밝힙니다.

I. 서론

선진국 기업 및 연구자들이 자원이 풍부한 지역, 주로 개발도상국에서 선주민(토착민: indigenous people) 또는 지역공동체(community)에 의하여 보존되어 온 생물자원 또는 유전자원에 관련한 전통지식의 일부를 입수, 이용, 개발하고, 특허권 등의 지식재산권을 취득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김병일 2017, 1). 북핵문제 타결 및 경제협력 협상이 원활히 진행될 상황을 예측할 때, 북한이 개혁·개방의 초기 체제전환국으로서 대외적 문호를 여는 시기에 전통자원의 지식재산권화가 급속히 진행될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북한 내 지리적 표시 영역 전통상품의 인식, 규범화 및 보호제도의 강화가 필요하며, 지리적 표시 보호 형태와 행정관리 체제에 관한 연구가 필요하다.

지리적 표시제(GI: Geographical Indication)는 상품의 품질, 명성 또는 그 밖의 특성이 본질적으로 지리적 근원에서 비롯되는 경우 회원국의 영토나 지역, 지방을 원산지로 하는 상품임을 명시하는 표시로 정의된다.¹⁾ 지리적 표시의 보호는 경제적으로나 문화적으로 중요하다. GI의 시행으로 지역 사회에 가치를 창출할 수 있으며, 전통상품의 보호, 관리 및 다음세대로의 이전을 가능케 한다. GI 보호정도가 높은 국가들은 이를 통해 농촌 개발을 지원하고 생산, 가공 및 기타 관련 서비스에서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해 왔다. GI는 개발도상국가가 가치를 부가하고 농촌 사회 경제 발전을 촉진 할 수 있는 잠재력 때문에 유용한 지적재산권의 한 부분이 되고 있다. 대부분의 국가는 지리적 표시의 개념에 해당하는 다양한 지역 제품을 보유하고 있는데 일부는 이미 세계적으로 알려져 있기도 하다. 개도국의 GI 사례로 전통, 문화 및 지리에 깊이 뿌리를 둔 제품인 바스마티(Basmati) 쌀 또는 다즐링 차 등을 들 수 있다.

각국의 GI 또한 무역관련지적재산권(TRIPS: Trade Related Intellectual

1) WTO TRIPs 제22조 GI가 최초 언급된 것은 파리협약(1883년)이며 이후 마드리드협약(1891년)과 리스본협약(1958년)에 원산지 명칭의 보호와 관련하여 포함되었으나, 동 협약들은 강제성이 없는 무역협약에 불과하여 국제규범으로서 한계를 지니고 있었다.

Properties) 내 GI 제도화 이후 비약적으로 발전해 왔으며, 이제 국제 통상에서 주요한 비관세장벽으로 기능하고 있다. GI와 같은 규범의 변화를 유발하는 제도는 양자 간 관계에 의한 협약이나 해당국 법제의 변화가 필요하므로 협약의 발효 이후 당사국 시장의 변화뿐 아니라 제 3국의 당사국 시장접근 및 차후 양자 간 자유무역협정(FTA: Free Trade Agreement) 협상에도 영향을 미치게 된다. 따라서 북한의 경우와 같이 체제전환이 시작되는 국가의 경우 초기 GI의 제도적 정립 및 관련 상품의 등록이 필요한 것이다.

본 논문에서는 북한 내 지리적 표시제의 인식과 관련법을 분석하였다. 북한은 현재 세계지적재산권기구(WIPO: World Intellectual Property Organization) 리스본협약 내 6개 GI 상품을 등록하였다. 인증된 북한의 GI 상품은 개성고려인삼, 백두산 가시오갈피, 고려신덕산생물, 강서약수, 백두산들쭉술 그리고 평양랭면이다. 본 연구에서는 위 GI 상품의 등록현황 및 보호·관리 상황, 이에 관한 인식 및 유통·판매 현황을 고찰하고자 한다. 북한은 독자적(sui generis) 보호시스템에 의하여 GI를 보호하는 국가다. 아시아 인접국 중 몽고, 태국, 베트남, 인도 등이 이와 유사한 보호형태의 법적 체제를 갖추고 있다.

II. 북한의 지리적표시제 관련 제도

국제사회에서 다수의 통상 네트워크 및 양자 간 무역협정 등이 체결됨에도 불구하고, 북한은 대부분의 영역을 개방하지 않은 채 남아있다. 탈냉전 시점인 1991년 북한은 UN에 가입하여 산하 기구 및 각종 조약에 가입하였으나, 이외 WTO 등 국제시장과 관련한 주요 기구에는 미가입한 상태다. 북한이 다자 간, 양자 간 무역 개방에 소극적이라 하더라도 일정 수준의 지식재산 보호가 필요하므로 1974년 WIPO에 가입하였으며, 수정협정인 파리협약(1980년 발효), 특허협력조약(1980년 발효)에 가입하였다. 또한 북한은 1980년 마드리드 협약(Madrid Agreement

Concerning the International Registration of Marks)에 가입하였으며, 96년 마드리드 의정서(Protocol relating to the Madrid Agreement Concerning the International Registration of Marks)에 가입하였다.²⁾ 해당 두 조약을 합쳐 마드리드 시스템이라 칭하며, 두 조약은 독립된 조약이다.³⁾ 2000년대 이후에는 문학적·예술적 저작물의 저작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베른협약(Berne Convention for the Protection of Literary and Artistic Works)(2003년 발효) 및 AO 제도를 위한 리스본협약(2005년 발효)의 체약국이 되었다. 북한은 2005년 WIPO 리스본협약에 6개 대상을 등록하였다.

〈표 1〉 지식재산권 관련 북한의 국제조약 등 가입 상황 (2019년 6월 현황)

협약 / 조약 / 세부법	총 가입국	채택	발효
WIPO Convention	192	1974. 5. 17	1974. 8. 17
Paris Convention	177	1980. 3. 7	1980. 6. 10
Berne Convention	177	2003. 1. 28	2003. 4. 28
Patent Cooperation Treaty	152	1980. 4. 8	1980. 7. 8
Patent Law Treaty	41	2018. 5. 22 (2000년 서명)	2018. 8. 22
Madrid Agreement (Marks)	55	1980. 3. 7	1980. 6. 10
Madrid Protocol	104	1996. 7. 3 (1989년 서명)	1996. 10. 3
Hague Agreement	70	1992. 4. 15	1992. 5. 27
Geneva Act of Hague	70	- 산업디자인권의 Hague Agreement 1992. 5. 27 - London Act × - Hague Act 1992. 5. 27	

- 2) 국제상표등록에 관한 마드리드시스템은 1891년 체결된 마드리드 협정과 1989년 체결된 마드리드 의정서에 의해 통제되며, 동 시스템은 다수의 국가에서 지정된 각 체약국에 상표를 등록함으로써 상표를 보호하는 제도이다(WIPO, "Madrid Agreement Concerning the International Registration of Marks." <https://www.wipo.int/treaties/en/registration/madrid/>, (검색일: 2019/10/08).).
- 3) 마드리드 의정서는 마드리드 협정이 가지고 있는 문제점을 극복하여 탄력적 국제상표 등록제도를 창설할 목적으로 마련되었습니다. 마드리드 협정과 의정서의 회원국을 마드리드 동맹이라 부른다(특허청, "마드리드 시스템." (https://www.kipo.go.kr/kpo/BoardApp/UMadInfoApp?c=1002&catmenu=m09_01_02 (검색일: 2019/10/08)).

		- Complementary Act of Stockholm 1992. 5. 27 - Geneva Act 2016. 9. 13.	
Nice Agreement	88	1997. 3. 6	1997. 6. 6
Lisbon Agreement	29	2004. 10. 4	2005. 1. 4
Locarno Agreement	57	1997. 3. 6	1997. 6. 6
Strasbourg Agreement	62	2001. 11. 21	2002. 11. 21
Budapest Treaty	82	2001. 11. 21	2002. 2. 21
Beijing Treaty on Audiovisual Performances	미발효	2016. 2. 19	-
Singapore Treaty	49	2016. 6. 13 (2006 서명)	2016. 9. 13
Marrakesh VIP Treaty	57	2016. 2. 19	2016. 9. 30

출처: WIPO, "Summary Table of Membership of the World Intellectual Property Organization (WIPO) and the Treaties Administered by WIPO, plus UPOV, WTO and UN," <https://www.wipo.int/treaties/en/summary.jsp>(검색일: 2019/ 09/15).

따라서 북한의 GI 인식과 제도는 전적으로 리스본협약에 의존하고 있다. 우선 북한의 지식재산권 관련법은 2000년대 이후 제정 및 개정을 거듭하였다. 북한은 WIPO 등 다자간 회의에 관한 권한을 최고인민회의가 가지고 있고, 지식재산 관련법의 제정 및 개정 권한 또한 최고인민회의가 가지고 있다. 해외특허 및 북한상표권 등 지식재산권 관련 국가 간 등록에 대해 북한은 전적으로 WIPO 내 마드리드협약 및 헤이그협약 등에 의존하고 있다.

EU는 2018년 7월 27일 제네바 법에 가입함으로써 GI 국제규범의 확산을 도모하고 있다. EU에서의 GI는 농수산물 및 그 가공품식품에 대하여 광의의 상표권 개념으로서의 지리적 표시에 대한 보호가 이루어지고 있었던 상거래상의 관행을 제도화한 것으로, 1992년 각료이사회(Council of the European Union)는 농업생산물 및 식료품에 대한 GI 및 원산지 표시 보호에 관한 유럽연합 규정 2081/92호를 공표하고, 이에 따라 GI는 ‘지리적표시보호(PGI: Protected Geographical Indication)’, ‘원산지명칭보호(PDO: Protected Designation of Origin)’로 구분하여 보호하고 있다(김한호 외 2013, 63).

확대된 개념의 GI는 생산된 제품의 특징적인 품질이 생산지역의 지리적 환경에 의해 밀접한 영향을 받을 경우 그 일정한 상품의 품질이 자연적이든, 인위적이든 지리적 환경에 기초한 경우에 한하며, 그 상품이 특정 지역에서 발생했다는 것을 나타내는 기호, 단어 또는 장치(device)를 의미하는 것으로, 이러한 제품은 지리적인 특성에 기초한 환경에서 기인하기 때문에 출처표시의 일종으로 일정한 품질을 보증하는 기능을 포함하고 있다(김한호 외 2013, 11). 리스본협약 상의 GI는 지리적 환경과 상품 및 특성을 요건으로 하여 원산지 명칭으로 보고 있지만, TRIPs 협정에서는 상품의 품질과 명성, 또는 기타의 요건을 확장하여 보고 있다(신계환 외 2017, 677). 그러므로 TRIPs 협정의 지리적 표시 개념은 리스본협약에서의 원산지 명칭보다 넓은 의미를 포함하는 개념이고, 단순히 일정 상품이 특정한 지역에서 기원되었다는 개념보다는 협소한 범위의 개념이다(유기진 2012, 6-7). 이에 WIPO 리스본협약에 가입한 북한의 GI 인식과 제도 정착에 관한 분석이 필요하다.

북한은 지식재산과 관련한 법률을 1990년대 후반 제정하기 시작하였다. <표 2>에서와 같이, 1998년 상표법, 산업디자인 관련 법률, 발명법을 제정하였으며 이를 2011년과 1999년 각각 개정하였다. 나아가 2001년 저작권법을 제정하였으며, 2003년 AO 관련 법률 및 컴퓨터 소프트웨어 보호법을 신설하였다.

북한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원산지명법을 주체92(2003)년 8월 27일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 제3964호로 채택하였다. 동 원산지명법은 총 5개장으로 구성된다. 이는 제1장 원산지명법의 기본, 제2장 원산지명등록의 신청, 제3장 원산지명등록의 심의, 제4장 원산지명권의 보호, 제5장 원산지명사업에 대한 지도통제이다. 동 법 내 제1장 제2조는 “원산지명은 이름난 특산품에 그 생산지를 밝힌 것이다. 원산지명으로는 독특한 자연지리적 환경이나 기술기능적 조건으로 자기의 고유한 질적 특성을 가지는 특산품이 생산된 나라와 지역, 지방의 지리적명칭이 된다.”라고 적시하였다. 이러한 조항은 GI의 개념을 정의한 것이라 할 수 있다.

제2장에서는 원산지명 등록의 신청에 관한 자격과 신청과정을 조항화하였다. 제2장 제9조는 신청자의 이름과 주소, 특산품의 생산지를 밝히며 특산품의 기술기능적 특성과 생산방법, 자연지리적으로 같은 것을 밝힌 문건을 첨부함을 기술하고 있으며, 제10조에는 다른 나라의 기관, 기업소, 단체와 공민이 원산지명을 북한에 기술할 때에 관한 신청과정이 적시되었다. 북한이 2004년 리스본협약에 가입하여 GI를 등록하기 시작한 사실로 보아, 2003년의 원산지명법 제정은 국제협약 가입을 위한 국내법령 정비 과정으로 인식할 수 있다. 제반 법률 조항 또한 리스본협약의 GI 규정, 보호범위, 신청 주체 및 등록 심의, 보호과정 등의 핵심사항이 유사한 체계를 이루고 있다. 북한은 2010년 이후 해외 상표법 등록을 대폭 강화해 왔다. 이들 중 다수가 주류, 인삼 등 특산품에 사용해 왔다. 2017년까지 마드리드 루트를 통해 출원된 북한 상표 등록 건수는 총 80건에 이른다.

주체사상 혹은 북한 고유의 지리적 명칭이나 문화를 반영하는 표지(평양, 대동강, 모란봉)들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어 특정 출처표지나 브랜드 기능보다는 원산지명칭으로서의 특성이 강하다고 볼 수 있다(신지연 외 2008, 64). 이를 다른 시각에서 보면 GI의 기능이 강한 상표가 등록된 것이라 할 수 있다.

Ⅲ. 북한의 WIPO 리스본협약 등록 지리적표시 상품 현황

1. 개성고려인삼 (Kaesong-Koryo-Insam)



북한 개성시에 위치한 개성고려인삼 제조사는 고려인삼(Koryo Insam /Koryo Ginseng)을 2005년 2월 9일 WIPO 리스본협약 내 AO 등록하였다. 개성고려인삼은 세계적으로 유명한 상품으로 역사성과 명성을 인정받아 왔다. 고려인삼은 유사 종류의 인삼에 비해 사포닌(saponin) 함량이 높아 역사적으로 효능을 인정받아 왔다. 사포닌이란 스페인어로 거품이라는

의미의 말로서, 물과 알코올에 잘 녹고 저을 때 생겨난 거품이 오래도록 지속되는 성질이 있는데, 해독 작용과 혈소판 응집 억제 작용 등 다양한 효과를 내는 화합물을 통틀어 가리킨다(이철성 2003, 86).

개성고려인삼을 홍보하는 ‘DPR Korea Tourism’ 홈페이지에서는 한국의 인삼이 유명하지만 개성의 토양, 수질 및 기상조건이 인삼재배에 가장 유리함을 강조하고 있으며, 개성고려인삼이 항방사능, 항암작용 등 의학적 효과가 있음을 홍보하고 있다. 개성고려인삼은 가공방법에 따라 밭에서 뽑아낸 가공되지 않은 수삼, 수삼을 물에 씻어서 햇빛에 말린 백삼, 일정한 가공·처리가 된 홍삼으로 분류한다.⁴⁾

개성고려인삼과 관련하여 WIPO 마드리드협약 내 개성고려인삼 관련 상표 표장 목록은 다음의 <표 2>와 같다.

<표 2> WIPO 마드리드협약 내 개성고려인삼 관련 상표 표장 목록

출원인	표장	지정상품	마드리드 지정국
개성고려인삼무역회사	 (ㄱ) KAESONG	개성 - 인삼 - 제약 제품, 약초, 에센스, 고약, 인삼 토닉, 경공 토닉 - 개성고려인삼 벌꿀 - 차 - 시럽, 음료 - 알코올 음료, 인삼 리큐어.	중국
	 (ㄷ) KAI CHENG		

출처: WIPO, “Global Brand Database,” [북한 개성고려인삼무역회사\(Korea Kaesong Koryo Insam Trading](https://www.wipo.int/branddb/en/?q={%22searches%22:[{%22co%22:%22AND%22,%22fi%22:%22OO%22,%22te%22:%22KP%22}],%22filters%22:[{%22fi%22:%22SOURCE%22,%22te%22:%22LIS%22}]}(검색일: 2019/05/25).</p>
</div>
<div data-bbox=)

4) 국가지식포털 북한지역정보넷, “개성고려인삼,” [http://www.cybernk.net/infoText/InfoNatureCultureDetail.aspx?mc=BN0501&id=CC020500053543&subac=&subsc=&schword=&order=0&direct=1&SearchSubject=null&SearchAdminst=null](http://www.cybernk.net/infoText/InfoNatureCultureDetail.aspx?mc=BN0501&id=CC020500053543&subac=&subsc=&schword=&order=0&direct=1&SearchSubject=null&SearchAdminst=null(검색일: 2019/05/25).)(검색일: 2019/05/25).

Company)는 WIPO 마드리드협약 내 3개의 개성고려인삼 관련 제품 상품 표장을 등록하였다. 해당 표장은 (ㄱ) 영문과 한자, (ㄴ) 한글, (ㄷ) 한자가 각각 기재되어 있으며, 이의 마드리드 지정국은 중국이다. 현재 북한의 개성고려인삼 전체 수출이 중국을 목적지로 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한국은 고려인삼을 국내 GI로 보호하고, 한-EU FTA GI 목록에 등록된 상황이나 북한이 개성고려인삼을 다자간 AO에 선등록함으로써 향후 이에 관한 조정이 예측된다.

2. 백두산 가시오갈피(Paektusan Kasiogalpi)

평양 내 백두산 가시오갈피 제조회사는 백두산 가시오갈피 상품을 2005년 9월 7일 WIPO 리스본협약 AO 등록하였다. 백두산 가시오갈피는 2000년대 북한상품 전문점에서 직송으로 원액의 형태로 국내 판매되기도 하였다. 원액은 가시오갈피환, 가시오갈피차, 가시오갈피 술 등의 제품으로 조제하거나, 물에 풀어 직접 마실 수 있다.

3. 고려신덕산샘물 (Koryo Sindoksan Saemmul)

고려신덕산샘물은 1995년부터 한국에 반입되기 시작하여, 1997년 3월까지 남포에서 인천항으로 수입되었다. 신덕산 샘물 1차분으로 17개 컨테이너(163톤)를 96년 반입하였으며, 2차분으로 0.5ℓ, 1.5ℓ짜리 소형페트병 각각 388,800병과 209,088병, 18.5ℓ 대형 폴리카보네이트(PC)병 11,088병 등 모두 608,976병이 반입되어 가정판매 등으로 유통되었다(매일경제, 1997/03/10). 같은 해 5월 이후 북한 신덕산샘물을 들여와 국내에 팔고 있는 고려샘물은 남포에서 서울까지 육상로를 이용해 샘물을 운송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고 밝혔다(한국경제, 1997/05/03).

북한에는 물이 귀해 물을 사서 마신다. 청진시와 평성시, 함흥시를 비롯한 주요 도시에는 샘물을 전문으로 파는 '조선광천수회사'의 상점

들도 있고 ‘황치령’, ‘강서샘물’, ‘금강산 샘물’은 중국에도 수출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으나 김정은은 ‘신덕샘물’을 마신다(통일신문, 2016/05/12). 2007년 4월 19일 북한의 동양무역회사는 고려신덕산샘물을 WIPO 리스본협약에 AO 등록하였다. 품목은 천연광천수이며, 2008년 3월 8일 국영 상표 및 산업디자인 품질관리국에 등록되었다. 2004년 6월 24일 ‘조선중앙통신’은 평안남도 룡강군에 위치한 고려신덕산샘물공장에서 매일 수백톤의 샘물을 생산하고 있다고 보도하며, 신덕산샘물은 시생대에 형성된 화강암과 편마암층에서 솟아 나오는 광천수로 75m²들이 침전탱크, 모래와 활성탄 여과기, 자외선 소독기 등을 거쳐 생산되며 고산봉무역총회사는 현재 중국을 비롯한 여러 나라에 이 샘물을 수출하고 있음을 알렸다(통일신문, 2016/5/12).

4. 강서약수 (Kangso Yaksu)

2007년 10월 11일 은하종합무역회사는 강서약수를 WIPO 리스본협약 AO 등록하였다. 강서약수는 강서약수(구약수터)와 청산약수(신약수터)로 갈라져있으며, 주변의 지질은 시생대 련화산암군에 속하는 흑운모화강편마암과 흰색화강암으로 이루어졌다.⁵⁾ 북한은 능라도 신덕샘물공장·고려동양샘물공장·용악산샘물공장 등을 건설하고 능라회사·동양회사·조선광천수회사 등을 통해 중국을 비롯한 동남아시아 등 외국으로 약수·생수를 수출하고 있다(중앙일보, 2017/11/16).


2017년 6월 북한의 김정은은 강서약수공장을 방문, 현지 지도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정은은 “강서약수공장의 생산을 높은 수준에서 정상화하는 것은 사회의 모든 재부가 철두철미 인민들의 복리증진에 돌려지는 북한사회주의제도의 우월성을 과시하기 위한 중요한 사업”이라고 말하였으며, 또한 “인민들의 건강을 보호하고 증진시키는데서 강서약수공장이 맡고 있는 임무와 역할이 대단히 중요하다”고 하면서 “약수

5) 남북한의 천연기념물, “강서약수(천연기념물 제56호)”, http://nm.nktech.net/cont/natura_l_v.jsp?nat_id=NM-NK056, 검색일: 2019/06/30).

생산을 늘리는 것과 함께 그 질을 더 높일 데 대한 문제, 공장의 현대화·과학화·자동화를 높은 수준에서 실현하기 위한 투쟁을 계속 힘 있게 벌릴 데 대한 문제, 늘어나는 생산량에 맞게 포장용기 문제를 원만히 해결할 데 대한 문제, 인민들이 마시는 약수를 다루는 것만큼 위생 문화적 환경을 조성하는데도 늘 깊은 관심을 돌릴 데 대한 문제 등 공장 앞에 나서는 강령적인 과업들”을 제시하였다.⁶⁾

북한의 대외선전매체 '메아리'는 2019년 1월 평양에서 남쪽으로 30km 떨어진 남포특별시 강서구역의 역사유적들과 강서약수를 함께 돌아보는 1일 코스 관광 상품을 소개하였으며, 해당 관광은 국가관광총국 산하 평양관광사를 통해 신청할 수 있도록 하였다(매일경제, 2019/01/17).

<표 3> WIPO 마드리드협약 내 강서천연탄산수 관련 상표 표장 목록

출원인	표장	지정상품	마드리드 지정국
은하무역회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섬유 - 의류 - 미네랄워터, 탄산수, 소다수 	중국, 러시아

출처: WIPO, “Global Brand Database”(https://www.wipo.int/branddb/en/?q={%22searches%22:[{%22co%22:%22AND%22,%22fi%22:%22OO%22,%22te%22:%22KP%22}],%22filters%22:[{%22fi%22:%22SOURCE%22,%22te%22:%22LIS%22}]}, 검색일: 2019/05/25).

<표 3> 내 ‘강서천연탄산수’ 상표는 한국어 문자 2개와 음역이 포함된 타원으로 구성된다. ‘강서천연탄산수’ 글자 왼쪽 상단의 타원에는 음역이 ‘은하’라고 적혀있다. ‘강서천연탄산수’는 미네랄워터, 탄산수, 소다수의 상품 표장으로 기능하며, <표 4> 표장 하단 ‘은하’는 섬유와 의류를 포함한다.

6) 통일부 북한정보포털, “(종합) 김정은, 강서 약수공장 공개 활동”(https://nkinfo.unikorea.go.kr/nkp/trend/viewTrend.do, 검색일: 2019/06/30).

5. 백두산들쭉술 (PAEKTUSAN TULJJUKSUL)

2008년 8월 22일 헤산 백두산 들쭉나무 기업은 백두산 들쭉술을 WIPO 리스본협약 AO 등록하였다.

<표 4> WIPO 마드리드협약 내 백두산 관련 상표 표장 목록

출원인	표장	지정상품	마드리드 지정국
헤산 들쭉가 공공장	 Paektusan	- 리큐어	중국, 쿠바, 프랑스, 이탈리아, 러시아

출처: WIPO, “Global Brand Database,” <https://www.wipo.int/branddb/en/?q={%22searches%22:{{%22co%22:%22AND%22,%22fi%22:%22OO%22,%22te%22:%22KP%22}},%22filters%22:{{%22fi%22:%22SOURCE%22,%22te%22:%22LIS%22}}>(검색일: 2019. 5. 25).

백두산 들쭉은 북한지방의 대표적 특산물로 술 종류 이외에도 청량음료 등으로 가공되어 판매되고 있다. 북한 주민들이 가장 즐겨 먹는 ‘들쭉단물’이라는 청량음료는 백두산지역 특산물인 들쭉열매로 만들고 있는데 평양방송은 지난 2001년 ‘우리 인민들은 그 어떤 음료보다 백두산 들쭉단물을 좋아한다.’고 전했다(통일뉴스, 2001/08/24).

북측 웹사이트 ‘우리 민족끼리’에서는 ‘백두산들쭉술’이 사람의 몸에 좋은 백두산들쭉을 주원료로 하여 만든 이름난 술로서, ‘들쭉’은 진달래과에 속하는 들쭉나무열매라 소개하며, 들쭉나무는 “우리나라 백두고원 일대와 황수원 일대, 금강산의 비로봉과 제주도 한라산 등 높은 산지대에 퍼져있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사이트는 들쭉나무는 “보통 높이가 30~40cm, 최고 1.2m 정도 자라며 검은 보라색이 나는 열매는 7월 하순~9월 하순경에 익는다”라는 것과, 백두산특산물인 들쭉에는 당분과 단백질, 조지방(粗脂肪, 순수하지 못한 지방질), 펙틴 등이 들어있어 청량음료나 당과류 생산의 원료로 이용된다고 소개하였다(통일뉴스,

2008/10/06). 북한 양강도 혜산시에 있는 기업소인 혜산들쭉가공공장은 양강도 지방의 높은 산간지대에 널리 분포되어 있는 특산식물인 들쭉을 가공하여 들쭉젤리, 들쭉술, 들쭉단물, 들쭉즙, 들쭉청량음료 등 맛있고 영양가 높은 여러 가지 들쭉제품들을 생산하고 있으며, 이러한 들쭉가공품들은 양강도 내의 수요를 충족시키는 한편 전국 각지 내지는 외국에도 수출하고 있다.⁷⁾ 또한 양강도 삼지연군 삼지연읍에 소재한 혜산들쭉가공공장 삼지연분공장에서 이 지방에 널리 분포되어 있는 풍부한 들쭉을 가공하여 여러 가지 들쭉젤리, 들쭉술, 들쭉단물 등 제품을 생산하고 있으며, 들쭉가공품들은 양강도 내의 주민들과 혁명전적지·혁명사적지들을 찾은 답사자들에게 공급되고 있다.⁸⁾

6. 평양랭면 (PYONGYANG RAENGMYON)

북한은 평양시 전체에서 생산하는 평양랭면 일체에 대해 2008년 8월 22일 WIPO 리스본협약 AO 등록되었다.

평양랭면이 맛있는 음식으로 소문난 것은 국수감, 국수물, 꾸미, 양념, 국수 그릇, 국수말기 등에서 특성이 있었기 때문이며, 평양랭면이 유명해진 것은 무엇보다도 사람의 몸에 좋은 영양성분이 많이 들어있어 옛날부터 장수식품으로 일러온 메밀을 국수감으로 쓴다는데 있었다.⁹⁾ 평양랭면의 품목은 냉면(cold noodles) 종류이며, 북한국내법 상 원산지명칭 및 최고인민회의 계측 및 품질관리사무소 상표법에 2003년 8월 27일 등록되었으며, 국영 상표 및 산업디자인 품질관리국에 2008년 6월 6일 등록되었다.

7) 국가지식포털 북한지역정보넷, “혜산들쭉가공공장,” <http://www.cybernk.net/infoText/InfoHumanCultureDetail.aspx?mc=CC0302&sc=A32010002&tid=CC020200007837&direct=1&direct=1>(검색일: 2019/06/30).

8) 국가지식포털 북한지역정보넷, “혜산들쭉가공공장삼지연분공장,” <http://www.cybernk.net/infoText/InfoHumanCultureDetail.aspx?mc=CC0302&sc=A32010002&tid=CC020200007875&direct=1&direct=1>(검색일: 2019/06/30).

9) 조선료리협회, “평양랭면,” http://www.cooks.org.kp/cooking_knowledge.php?menu=local&kID=9(검색일: 2019/06/30).

IV. 북한의 지리적 표시 등록 예상 상품

1. 마드리드협약 내 상표 등록 상품 중 주요 수출 제품

북한은 WIPO 마드리드협약 내 총 82개의 상표 브랜드를 등록하였다. 본 절에서는 이 중 GI 등록 가능성이 있는 일부 상표를 제시하였다.

① 대동강 맥주(Taedonggang Beer)

대동강맥주공장은 지난 2002년부터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각별한 관심 속에 조업을 시작한 이래 2007년 이후 품질관리를 위주로 경영관리를 전환했으며, 2008년과 2010년 12월에 'ISO 9001 품질관리체계' 인증과 'HACCP 식품안전관리체계' 인증을 받았다(통일뉴스, 2015/06/01).

2000년대 초반 대동강 맥주는 중국을 통해 국내에 수입되어 유통되었으며, 당시 수입 맥주는 2번 맥주¹⁰⁾가 주종을 이루었다. 2017년 대동강맥주공장은 '떼기식통맥주(캔맥주)'를 처음으로 생산하였다. 당시 북한의 '조선신보'는 새로운 떼기식통맥주의 보리와 흰쌀의 배합 비율은 인민들의 수요가 높은 '2번 맥주'와 같다고 소개했다(통일뉴스, 2017/03/14). 이후 북한은 맥주용기의 다양화를 꾀하였으며, 현재는 펄트맥주가 제조되고 있다.

북한 대외용 매체인 '서광'은 수지병 발매 이전에는 유리병이나 50리터 용적의 금속통 따개식 포장용기가 이용돼 왔으나 수지병 대동강 맥주는 정상농도인 11도의 농도와 대동강 맥주 고유의 맛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고 소개했다(서울평양뉴스, 2019/06/08).

대동강 맥주는 2019년 5월 덴마크 코펜하겐에서 열린 '코펜하겐 미켈러 맥주축제(MBCC)'에도 참가한 바 있다. 대동강맥주의 덴마크행은 지난 4월 평양에서 열린 만경대상 국제마라톤경기대회에 맥주회사 미

10) 대동강 맥주는 1번부터 7번까지 종류가 있으며, 2번 맥주는 '알콜도수 5.5%에 맥아 70%와 흰쌀 30%로 만들었으며, 맛이 연하고 깨끗하며 거품성이 좋은 기본 품종의 맥주로서 소비자의 호평이 좋은 맥주'를 의미한다(통일뉴스, 2015/06/01).

켈러의 달리기 동호회를 이끌고 참가한 CEO 미켈 보 베그쇠가 제안하면서 성사됐다(라디오서울, 2019/5/10). 북한 평양에서 ‘평양대동강맥주축전’을 개최하기도 하나, 대동강 맥주가 국제대회에 참여하게 된 것은 이례적인 일이다.

② 평양김치(Kimchi Pyongyang) / 류경김치(Kimchi Rhyukyong)

북한은 지난 2015년 김치담그기 풍습을 유네스코 인류무형유산에 등재했다. 유네스코는 김치가 채소를 발효시킨 음식으로 수백 개의 다양한 종류가 있고, 일상적인 식사는 물론 결혼, 생일과 같은 특별한 때에도 먹는다고 소개했다. 또한 김치담그기 풍습이 가족과 마을, 공동체의 화합에 기여하고 즐거움과 자부심을 준다고 평가하며, 사회 다양한 계층이 공유하는 문화이고 세대를 거쳐 계승되고 있다고 하면서, 구체적인 보존 계획이 있고, 다양한 관련 조직이 등재에 동의했으며 이미 북한의 무형유산 목록에 포함되어 있다는 근거를 제시하였다(Voice of America(VOA), 2015/12/03). 북한 당국은 전통 김치에 대한 보존과 생산을 강조해 왔다. 2004년 ‘통일신보’는 당시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지방 시찰 후 김치에 관하여 언급한 사항을 자세하게 전하고 있다. 김 위원장은 “함경도 지방의 석박김치와 식혜, 평안도 지방의 통김치와 깍두기, 개성지방의 보쌈김치 등 지방별로 그 맛이 다르다”고 언급하고 “김치 종류도 배추김치, 보쌈김치, 깍두기, 동치미, 통김치, 열무김치, 갓김치, 나박김치 등 수십 가지에 이른다”며 평안도 김치를 기본으로 여러 종류의 김치를 생산할 것을 강조했다(통일뉴스, 2012/12/06).

평양김치는 평양시 대동강지구 총류 1동에 소재한 평양속종야채가공공장(Pyongyang Sokjong Vegetable Processing Factory)에서 2003년 2월 27일 상표 등록을 진행한 상품이다. 속종공장은 간장에 얇게 썬 채소를 산업생산하는 현대식 식품가공기지로 무, 오이, 고추 및 마늘과 같은 다양한 종류의 채소를 가공하여 판매한다(Korean Central News Agency(KCNA), 2009/11/29). 마드리드 지정국은 중국, 러시아, 카자흐스탄 및 몽골이다. 표장은 파란바탕색의 타원에 평양이라 정자로 적

힌 문양이다. 류경김치의 경우에는 평양시 태송지구 미산 2지사에 위치한 류경김치공장에서 2017년 7월 18일 WIPO 마드리드협약에 상표를 등록하였다. 표장은 <표 5> 내 아래쪽 그림과 같이 양배추와 순무의 그림으로 묘사되었다. 류경김치공장은 김일성, 김정일의 김치생산 공업화 유훈에 따른 것으로, 평양교외에 위치하고 연건축면적 1만 5,660여㎡이며, 연간 4천2백여 톤의 김치와 장절임 식품 생산이 가능하고, 김정은 제1위원장이 직접 공장 이름을 명명했다(통일뉴스, 2016/06/10).

<표 5> WIPO 마드리드협약 내 ‘평양김치/류경김치’ 관련 상표 표장 목록

출원인	표장	지정상품	마드리드 지정국
평양속 종야채 가공공 장		- 김치 (다양한 발효 야채로 만든 음식)	중국, 러시아, 카자흐스탄, 몽골
류경김 치공장		- 김치, 소금에 절인 야채	중국, 러시아

출처: WIPO, “Global Brand Database”(https://www.wipo.int/branddb/en/?q={%22searches%22:[{%22co%22:%22AND%22,%22fi%22:%22OO%22,%22te%22:%22KP%22}],%22filters%22:[{%22fi%22:%22SOURCE%22,%22te%22:%22LIS%22}], (검색일: 2019/05/25).

북한산 평양김치는 ‘평양통배추김치’라는 명칭으로 국내에 시판된 바 있다.(주)경평인터내셔널(대표 고용무)은 2015년 북한 평양시 락랑구역 소재 남북합영 식품공장에서 생산한 북한 전통 김치인 ‘평양통배추김치’를 국내 시판한다고 밝히며, ‘평양통배추김치’는 (주)경평이 시설 투자와 판매를 맡고 북한 광명성총회사가 공장부지와 인력, 원재료를 공급하는 국내 최초 남북식품합영회사에서 생산한 것으로 특히 “청정지역 북한에서 생산되는 100% 북한산 원료를 사용했다”고 밝혔다(통일뉴스, 2005/12/16).

김치는 남북한 공통의 전통적 향토음식으로 원산지명칭 및 제조법에 대한 보호가 주요한 식품대상이다. 평양이 소재한 평안도의 김치는 주

로 동치미이며 냉면용 동치미는 따로 담그는 것이 특징이다(유선미 외 2011, 16). 이와 같은 향토음식의 경제적·문화적 가치를 지키고 경쟁력을 상승시키기 위해 GI의 활용은 적극적으로 필요하다. 향토음식은 지역 농산물 소비증대, 고용창출, 관광상품화 등 농촌경제 활성화 수단으로 활용이 가능하므로, 식재료와 전통의 조리법 그리고 식문화 등이 포함된 향토음식을 국가의 대표적 문화상품으로 개발할 필요가 증가하고 있다(유선미 외 2011, 17).

③ 금강산 샘물(Kumgangsan Saemmul)

금강산 샘물의 근원인 금강약수는 강원도 금강산 내금강지역 백운대 구역 백운대아래에 있는 약수터를 지칭한다.¹¹⁾ 금강산 샘물은 내수용으로 판매통지만, 마드리드 지정국에 중국, 스위스, 프랑스, 러시아를 채택할 정도로 수출을 염두에 둔 프리미엄 생수다.

봄향기 합작투자사가 등록한 표장은 평안북도 신의주 속화마을 소재 신의주 화장품 공장(Usine de Cosmétiques de Sinuiju)과의 합작과 상품 판매를 위한 표장이다. 신의주 화장품 공장은 세탁용 표백제, 세정제, 비누, 향수, 화장품, 헤어로션, 치약 및 상품의 포장용 비닐봉투, 판매서비스를 위해 ‘금강산’ 표장과 별개로 ‘봄향기’ 표장을 2009년 6월 30일 등록하였다.

금강산 샘물은 1995년 신덕샘물과 함께 국내에서 본격 시판되었다. 동신수산, (주)세모, (주)수정금강산샘물 등 3개사는 신덕샘물, 온천샘물, 수정금강산샘물 등 북한생수의 수입승인 절차를 마치고 1995년 10월 국내 유통에 들어갔으며, 특히 (주)수정금강산샘물은 수정금강산샘물 0.5ℓ와 1.0ℓ 들이로 48.3kℓ을 들여와 당시 광주비엔날레 북한관에서 전시 및 시음회를 통해 홍보, 판촉을 한데 이어 1995년 11월부터 들어오는 물량을 대리점을 통해 시판하였다(중앙일보, 1995/10/30). 2000년 금

11) 국가지식포털 북한지역정보넷, “금강약수,” <http://www.cybernk.net/infoText/InfoFiveGreatMountainDetail.aspx?mc=M20406&selMT=M201&id=BN020200014706&rightType=3&direct=1&direct=1> (검색일: 2019/06/30).

강산 샘물은 남북합작사업의 결실로 국내 시판되었다. 금강산 샘물은 북한의 조선릉라 888 무역총회사와 (주)태창이 합작해 설립한 금강산 샘물합작회사에서 생산해 (주)태창이 수입하고 동원산업에서 국내 판매 대행을 하였는데, 민간협력 사업에서 공식적인 첫 반입 제품으로, 당시 '삼록수'라는 이름의 금강산 샘물은 500ml와 1.8ℓ 페트병 2종이 있었고 시중 판매가격은 일반 샘물보다 100~200원 비싼 600원과 1200원이었다(식품음료신문, 2000/07/10).

이후 2008년 한국에서 시판된 바 있는데 한국의 서울우유 협동조합은 북한의 생태보전 특별지역인 금강산 동석동 지하 120m에서 취수된 천연 암반수를 이용한 생수제품을 2008년 6월부터 한국 소비자들에게 판매하였다(Voice of America(VOA), 2008/6/18).

금강산 샘물은 2017년 '5.24 조치' 이후 처음으로 북한산 물자가 국내에 반입된 사례로 알려진 바 있다. 통일부는 북한에서 생산된 500ml 페트병에 담긴 '금강산 샘물' 4만6천병의 국내 반입을 허가해달라는 단군민족평화통일협의회(이하 단통협)의 신청을 2017년 11월 15일 승인하였으며, 이 물품들은 중국의 조선족 기업가가 북한에서 구매해 단통협에 무상으로 기증한 것으로, 단통협은 같은 달 20일에 서울에서 음력 개천절을 기념한 행사를 열고 제수용으로 금강산 샘물을 쓸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연합뉴스, 2017/11/15).

2. 북한 특산물: 농축산물, 수산물

북한은 지리적 표시로 등록한 6개 상품 이외에도 WIPO 마드리드협약 상표 표장 등록을 통해 생수, 알코올 제품, 화장품 등의 가공제품의 원산지를 보호하고 있다. TRIPs 내 지리적 표시제가 포도주와 증류주 등 주류의 제한적 보호에 국한된 데 비하여, WIPO의 지리적 표시제는 다양한 가공품과 농축산물, 수산물 나아가 비농산물에 이르는 보호범위를 포괄하고 있다.

북한이 지리적 표시로 등록 가능한 농·축·수산물 중 대표적인 상품은 다

음과 같다. 평양시의 강동왕대추, 능라도흰봄무, 평안남도의 성천밤, 속천 옥류, 평안북도의 구장칠색송어, 신의주배, 자강도의 강계사과, 강계가두, 황해남도의 강령고구마, 강령참대, 재령쌀, 황해북도의 사리원포도, 황주 사과, 함경남도의 신창송이버섯 그리고 양강도의 해산종호프 등이 있다.

3. 비농산품 미래 GI

GI를 선도하고 있는 EU는 비농산품에 대한 GI 적용 확대를 이끌고 있다. 현재 비농산품에 대해 EU 전역에 통용되는 GI 보호가 시행되지 않고 있으나, 특정 공예품(예: 도자기)에 대한 지역 또는 국가 규정, 특정 제품(예: Solingen 나이프)에 대한 개별 국가 차원에서의 특정 법률 또는 비농산 GI 제품 보호 법규가 시행되고 있다.¹²⁾ EU는 GI를 양자간 협정을 통해 확산시키는 방안을 선호하고 있으며, 최근 개정협상한 EU-멕시코 FTA에는 비농산품 목록을 부속서에 포함하여 이의 향후 적용을 협정문 내 문서화하였다. EU-멕시코 FTA 개정협상문 ANNEX III에 제시된 미래 GI 품목에는 수공예 도자기, 수제 천연수지, 기타 및 완구 등 수제품, 채석제품, 유기, 판초 등 비농산제품이 포함되었다(European Commission 2018, 39-40).

WIPO에 등록된 비농산품은 이란의 sarough 수제 카펫(sarough handmade carpet), 페루 카나스시의 도자기(chulucanas), 헝가리 헤렌드시의 도자기(herend) 등 다수가 등재되어 있다. 북한은 향후 가치를 지닌 GI 전통 비농산품을 발굴하여 WIPO 혹은 내부 원산지관리법에 등록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12) European Commission, "Geographical indications for non-agricultural products," https://ec.europa.eu/growth/industry/intellectual-property/geographical-indications/non-agricultural-products_en (검색일: 2017/06/14).

<표 6> 지리적 표시 지정 가능한 북한의 비농산품 목록

행정 구역	비농산품	특징
함경북도	생기령 고령토	함경북도 경성군 생기령노동자구 일대에 분포되어 있는 고령토. 영남, 호남지역에서 생산되는 고령토에는 70%가 넘는 불순물이 함유되어 있는 것에 반해 생기령고령토는 불순물 함량이 25%밖에 되지 않고 내화도도 강하여 예로부터 고장 명산물로 부상됨. 생기령고령토는 경성도자기공장을 비롯한 도자기공장들의 원료기지로써 중요한 의의를 가짐
	회령 도자기	회령이 여진 금나라에 속하던 때부터 해당 지역은 주요한 가마였음. 회령백토는 오랜 세월 도자기의 원료로 쓰이면서 세상에 널리 알려진 고품질백토인데 이 백토로 제조되는 회령도자기들은 견고하며 형태가 부드럽고 색상이 담백하고 장식무늬가 다양하여 이곳 사람들의 고유한 생활풍습과 민족적 정서를 그대로 나타내고 있음.
황해도	해주 도자기	'해주가마 백자'는 황해도 해주를 중심으로 조선시대 말기 이후에 제작된 청화백자 계통을 말함. 조선후기에 들어서면서 조선 왕조의 공식 자기제작소인 분원이 해체되자 당시 분원자기를 모방한 도자기들이 지방 민간 가마에서 다수 제작됨. 관요에서 만들어진 도자기가 정형화된 솜씨였다면, '해주요'는 그만의 독특한 특징으로 인기가 높았음.

출처: 국가지식포털 북한지역정보넷, “자연지리정보관, 특산물.” (<http://www.cybernk.net/infoText/InfoNatureCultureList.aspx?mc=BN04&sc=A220&direct=1&ac=A10> 검색일: 2019/06/30); (통일뉴스, 2007/12/1).; Kobay Auction, “청화를 기본으로 철화와 동화를 사용해 거침없이 문양을 그려낸 해주가마 청화백자 향아리.” <https://www.kobay.co.kr/kobay/item/itemLifeView.do?itemseq=1512A6JWMAT> (검색일: 2019/06/30).

함경북도 경성군의 생기령고령토는 예부터 질이 좋아 주변 도자기공장의 주원료로 공급되었다. 생기령고령토는 영·호남 지역 고령토에 비해 불순물 함량이 낮아 GI 보호 적용대상이 될 수 있다. 두만강 변경지대에 위치한 회령의 도자기는 인근지역뿐만 아니라 동아시아 주변국에도 유명하다. 일본인들은 이 회령 지방을 '카이네', 회령 사발을 '카이네다완'이라 부르고 있으며, 일제강점기에만 해도 '회령 오지 그릇'은 명성이 높았다 한다(오마이뉴스, 2003/12/02). 회령의 가마시설은 오지가마라고 하여 산비탈에 약 40도 경사를 보장하면서 축조되었으며, 제품 품종에 따라 김장독과 쌀함박 같은 것은 노루미가마(등요)라고 불리는 가마시설에서, 꽃병이나 세소일용품들은 여러칸식 오지가마에서

구웠다. 이러한 연원을 가진 회령도자기와 더불어 해주도자기는 GI 등록 상품으로 활성화할 수 있을 것이다.

V. 결론 및 시사점

본 연구에서는 북한의 GI 인식과 관련법 및 현황을 분석하였다. 북한이 WIPO 리스본협약에 등록한 6개 GI 상품인 개성고려인삼, 백두산 가시오갈피, 고려신덕산삼물, 강서약수, 백두산들쪽술 그리고 평양랭면의 등록 과정 및 판매 현황 등을 검토하였다. 나아가 추후 북한이 GI 등록을 예상할 수 있는 상품으로 첫째, WIPO 마드리드협약 내 상표 등록 상품, 둘째, 북한 특산물 중 농축산물과 수산물, 셋째, 비농산품 영역의 미래 GI 상품으로 분류하여 고찰하였다. 마드리드협약 내 상표 등록 상품으로는 대동강맥주, 평양김치/류경김치 그리고 금강산 샘물이 있다. 이들은 대외수출 및 남북교류 대상 상품으로 상표등록뿐 아니라 GI 등록 관리가 가능한 상품이라 할 수 있다. 또한 북한특산물 중 GI 등록 예상 품목은 강동왕대추, 능라도 흰봄무, 성천밤, 숙천옥류, 구장 칠색송어, 신의주배, 강계사과, 강계가두배추, 강령고구마, 강령참대, 재령쌀, 사리원포도, 황주사과, 신창송이버섯, 혜산종호프 등이 있다. 비농산품 영역에서 북한의 미래 GI 예상 상품은 생기령고령토, 회령도자기, 해주도자기 등이 있다.

GI는 신지식재산권에 속하는 새로운 개념인 만큼 한국에서도 학문적으로 축적된 정도와 기간이 얼마 되지 않는다. 이에 더해 북한의 GI에 대해서는 거의 알려진 바가 없다. GI는 그 사회의 전통, 사회·문화, 역사적 가치가 반영되어 지역의 농·식품을 인증하는 제도이기 때문에 북한 내 관련 상품을 발굴하고 보호·육성해야 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더불어 정부 차원에서의 GI 제도에 관한 대 국민 인식 확산이 필요하다. 현재 GI를 제도로써 인지하는 소비자의 비율이 현저히 낮은데다, 이를 알고 있다 하더라도 원산지 표기 정도의 인식수준을 나타내어 생산자

의 입장에서 적극적으로 등록·활용하고자 하는 의지가 낮은 상태다. 최근 언론에서 시행한 인터뷰에서 보면 GI의 유명무실함이 극명히 드러난다. 한 농업인단체 관계자는 “농업인들이 힘들여 GI 등록을 하더라도 혜택이 적다보니 굳이 신청해서 뭐하냐는 회의론이 있다”며 “상품에 등록마크가 있어도 사람들이 잘 모른다”고 말했으며, 유통업 관계자는 “소비자들도 GI에 대해 잘 모른다. 인증마크 있어도 판매에 거의 도움이 안된다”며 “인증마크 있다고 제품에 큰 차이가 있는 것도 아니다. GI 농산물을 찾아야 할 이유가 없다”고 밝혔다(경남일보, 2018/06/11). EU의 경우 일반적으로 소비자들은 GI 제품을 더 높은 가격을 지불하고 구매하는 경향이 있으며, 이러한 경향을 측정하기 위해 非 GI 제품과 GI 제품과의 가격비율은 프리미엄(premium)으로 정의할 경우 EU GI 제품의 평균 프리미엄이 2.23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GI 제품을 非 GI 제품에 비해 2.23배 더 비싸게 구매한다는 것을 의미한다.¹³⁾

개혁·개방 초기 북한의 1차 산업 중 농업분야에 대한 지원이 집중될 시기 생산성과 효율성, 농업경쟁력을 제고할 수 있는 중요한 제도가 GI라 할 수 있으며, 동 제도의 활성화를 통해 전통적 노하우와 농업생산물 생산과정의 질적 보호가 유지될 수 있다. 나아가 북한이 체제전환에 성공하여 빠른 속도로 산업화가 진전되면 필연적으로 농업인구의 유출이 발생할 시기를 맞이할 수 있으나, 이러한 선진 제도의 도입을 통해 농업인구의 유지를 지원할 수 있는 것이다.

13) 외교부, “[경제동향]EU EU, 지리적 표시 침해 보고서 발표,” http://www.mofa.go.kr/www/brd/m_4049/view.do?seq=361016&srchFr=&srchTo=&srchWord=&srchTp=&multi_itm_seq=0&itm_seq_1=0&itm_seq_2=0&company_cd=&company_nm=&page=50 (검색일: 2019/06/30).

<참고문헌>

1. 국내문헌

- 김병일, “전통지식의 독자적(sui generis) 보호 방안에 관한 연구: WIPO 논의 동향을 중심으로”, 『Issue paper 제2017-8호』, 한국지식재산연구원, 2017.
- 김현정, “한-EU FTA 발효 이후 한국 내 지리적 표시제 적용 및 변화 분석”, 『세계지역연구논총』 36집 1호, 2018.
- 신계환·이환수, “지리적 표시제도 활성화 방안 연구: 막걸리 산업을 중심으로”, Asia-pacific journal of multimedia services convergent with art, humanities, and sociology, 제7권 제5호, 2017.
- 신지연·윤권순·서지영·윤선희, 『남북한 지식재산권 제도의 조화방안: 남북 경제공동체 형성을 위한 지식재산권 정책의 역할을 중심으로』, 특허청, 2008.
- 유기진, 『지리적 표시제의 실시와 역사지리적 접근』 성신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12.
- 유선미·김행란·최정숙·김하윤·황영, “팔도음식 지리지: 한식 세계화의 숨은 보고”, RDA Interrobang 제24호, 2011.
- 이철성, “개성인삼이 왜 유명하게 되었을까?”, 『내일을 여는 역사』131호, 2003.

2. 기타

- 강진성, “유명무실한 '지리적 표시제'”, 경남일보, 2018/06/11.
- 김수연, “북한 중산층 기준은 놀랍게도...”, 중앙일보, 2017/11/16.
- “[북한 엿보기] 신덕샘물: 인체에 유해한 원소 전혀없어/하루 분출...6만명 마실 수 있는 량”, 통일신문, 2016/05/12.
- 김양희, “평안도 김치 맛이 괜찮다: <연재-시즌2> 김양희의 민족음식이 야기 (33)”, 통일뉴스, 2012/12/06.
- 김현옥, “'삼록수' 금강산 샘물 시판”, 식품음료신문, 2000/07/10.
- 김환용, “서울우유 '금강산 샘물 한국에서 판매'”, Voice of America (VOA), 2008/06/18.
- 백나리, “북한산 생수 7년만에 첫 반입...5·24조치에도 이례적 승인”, 연합뉴스, 2017/11/15.
- “북한産 생수 본격시판”, 중앙일보, 1995/10/30.
- 신한균, “우리가 모르는 북한의 회령도자기: 일본인들이 찬탄한 회령도자기”, 오마이뉴스, 2003/12/02.
- 안상호, “북 '대동강' 맥주, 덴마크 맥주축제 참가”, 라디오서울, 2019/05/10.
- 안윤석, “北 대동강맥주 포장용기 다양화...패트병 맥주 등장”, 서울평양뉴스, 2019/06/08.
- 이계환, “북 대동강맥주공장, 첫 500ml 캔맥주 생산”, 통일뉴스, 2017/03/14.
- 이계환, “<북한상식> '백두산 들쭉술'이란”, 통일뉴스, 2008/10/06.
- 이계환, “<북한상식> 함경북도 회령3미를 아십니까? 여미(女美), 행미(杏

- 美), 토미(土美)”, 통일뉴스, 2007/12/01.
- 이광길, “북한산 ‘평양통배추김치’ 국내 시판 (주)경평, 남북합영공장서 ‘평양동치미’ 생산계획도”, 통일뉴스, 2005/12/16.
- 이기동, “북한 신덕산생물 반입”, 매일경제, 1997/03/10.
- 이승현, “그리운 금강산, 그리운 대동강맥주:[친절한 통일씨] 대동강맥주, 5.24가 맞아간 또 하나의 즐거움”, 통일뉴스, 2015. 06. 01.
- “[중소기업 화제] 고려생물, 북한 생수 육로 통해 도입 추진”, 한국경제, 1997/05/03.
- 조은정, “북한 김장문화, 유네스코 인류무형유산 등재”, Voice of America(VOA), 2015/12/03.
- 조정훈, “北 김정은, 류경김치공장 찾아 “맛난 김치 만드자””, 통일뉴스, 2016/06/10.
- 최척호, “북한지방의 특산물”, 통일뉴스, 2001/08/24.
- “Kim Jong Il Inspects Pig Farm and Foodstuff Factory”, Korean Central News Agency(KCNA), 2009/11/29.
- “北, ‘강서약수’ 치료관광 홍보 나서…관광상품도 출시”, 매일경제, 2019/01/17.
- 국가지식포털 북한지역정보넷, “개성고려인삼”(http://www.cybernk.net/infoText/InfoNatureCultureDetail.aspx?mc=BN0501&id=CC020500053543&subac=&subsc=&schword=&order=0&direct=1&SearchSubject=null&SearchAdminst=null, 검색일: 2019/05/25).
- 국가지식포털 북한지역정보넷, “금강약수”(http://www.cybernk.net/infoText/InfoFiveGreatMountainDetail.aspx?mc=M20406&selMT=M201&id=BN020200014706&rightType=3&direct=1&direct=1, 검색일: 2019/06/30).
- 국가지식포털 북한지역정보넷, “자연지리정보관, 특산물”(http://www.cybernk.net/infoText/InfoNatureCultureList.aspx?mc=BN04&sc=A220&direct=1&ac=A10, 검색일: 2019/06/30).
- 국가지식포털 북한지역정보넷, “혜산들쭉가공공장”(http://www.cybernk.net/infoText/InfoHumanCultureDetail.aspx?mc=CC0302&sc=A32010002&tid=CC020200007837&direct=1&direct=1 (검색일: 2019/06/30).
- 국가지식포털 북한지역정보넷, “혜산들쭉가공공장삼자연분공장”(http://www.cybernk.net/infoText/InfoHumanCultureDetail.aspx?mc=CC0302&sc=A32010002&tid=CC020200007875&direct=1&direct=1, 검색일: 2019/06/30).
- 남북한의 천연기념물, “강서약수(천연기념물 제56호)”(http://nm.nktech.net/cont/natural_v.jsp?nat_id=NM-NK056, 검색일: 2019/06/30).
- 외교부, “[경제동향][EU] EU, 지리적 표시 침해 보고서 발표”(http://www.mofa.go.kr/www/brd/m_4049/view.do?seq=361016&srchFr=&srchTo=&srchWord=&srchTp=&multi_itm_seq=0&itm_seq_1=0&itm_seq_2=0&company_cd=&company_nm=&page=50, 검색일: 2019. 6. 30).
- 조선료리협회, “평양랭면”(http://www.cooks.org.kp/cooking_knowled

- ge.php?menu=local&kID=9, 검색일: 2019/06/30).
- 통일부 북한정보포털, “(종합) 김정은, 강서 약수공장 공개 활동”(https://nkinfo.unikorea.go.kr/nkp/trend/viewTrend.do, 검색일: 2019/06/30).
- 특허청, “마드리드 시스템”(https://www.kipo.go.kr/kpo/BoardApp/UMadInfoApp?c=1002&catmenu=m09_01_02, 검색일: 2019/10/08).
- European Commission, “Modernisation of the Trade part of the EU-Mexico Global Agreement Without Prejudice.” http://trade.ec.europa.eu/doclib/docs/2018/november/tradoc_157508.%20IPR%20-%20Agreement%20in%20Principle%202.pdf, 검색일: 2018/11/24).
- European Commission, “Geographical indications for non-agricultural products”(https://ec.europa.eu/growth/industry/intellectual-property/geographical-indications/non-agricultural-products_en, 검색일: 2017/06/14).
- Kobay Auction, “청화를 기본으로 철화와 동화를 사용해 거침없이 문양을 그려낸 해주가마 청화백자 향아리”(https://www.kobay.co.kr/kobay/item/itemLifeView.do?itemseq=1512A6JWMAT, 검색일: 2019/06/30).
- WIPO, “Global Brand Database”(https://www.wipo.int/branddb/en/?q={%22searches%22:[{%22co%22:%22AND%22,%22fi%22:%22OO%22,%22te%22:%22KP%22}],%22filters%22:[{%22fi%22:%22SOURCE%22,%22te%22:%22LIS%22}], 검색일: 2019/05/25).
- WIPO, “Madrid Agreement Concerning the International Registration of Marks”(https://www.wipo.int/treaties/en/registration/madrid/, 검색일: 2019/10/08).
- WIPO, “Summary Table of Membership of the World Intellectual Property Organization (WIPO) and the Treaties Administered by WIPO, plus UPOV, WTO and UN”(https://www.wipo.int/treaties/en/summary.jsp, 검색일: 2019/05/25).

투고일 : 2020년 5월 15일 . 심사일 : 2020년 5월 24일 . 게재확정일 : 2020년 6월 4일

* 김현정은 동아대학교에서 국제학 박사학위를 취득하였고 현재 동아대학교 국제전문대학원 조교수로 근무하고 있다. 대표 논문으로는 “삼차원게임이론의 관점에서 바라 본 유럽연합의 FTA 협상 전략 및 정치: 한-EU FTA와 EU-일본 EPA의 비교를 중심으로” “한-EU FTA 발효 이후 한국 내 지리적 표시제 적용 및 변화 분석” 등이 있다.

<Abstract>

A Study on the Perception and Status of Geographical Indication in North Korea

KIM, HyunJung
(Dong-A University)

This study analyzed the Perception and Status of Geographical Indication in North Korea. North Korea has already registered six GI products at the World Intellectual Property Organization (WIPO); Kaesong-Koryo-Insam, Paektusan Kasiogalpi, Koryo Sindoksan Saemmul, Kangso Yaksu, Paektusan Tuljiksul, and PyongYang Raengmyon. In the future, when opening the market in North Korea, it is necessary to improve the GI system and expand registration of related products to protect traditional products and agriculture. When North Korea begins reforming and opening up, it is necessary to concentrate support for agriculture among the primary industries in North Korea. External support needs to be focused on GI products that can enhance productivity, efficiency and agricultural competitiveness. At the same time, through the activation of the system, the traditional know-how of North Korea and the quality protection of agricultural products production process can be maintained.

Keywords : Geographical Indication, North Korea, WIPO(World Intellectual Property Organization), Lisbon Agreement, Koryo-Insa